

미국, 日·豪·印과 전략물자 조달에서 중국의존 탈피추진

- 반도체·EV 전지·희토류·의약

2021. 6. 9. 일본경제신문

바이든 미 행정부는 8일 반도체 등 전략물자 조달을 위한 공급망(Supply Chain)의 수정 전략을 마련.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일과 호주, 인도가 협력하는 “Quad(쿼드)”와 G7에서 연계하여, 안정적인 조달을 목표로 하는 방침을 명기. 당장은 미국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음.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보고서의 공표에 앞서 "중요 부재의 국내 생산 재건과 조달처의 다양화가 불가결하다"고 기자들에게 언급. 바이든 대통령은 2월 하순 (1)반도체, (2)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3)희토류 등의 중요 광물, (4)의약품 등의 4개 분야에서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개선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상무부 등 관계부처가 100일간의 검토결과를 정리

<미국 공급망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전 체	단기적인 공급 혼란에 전문팀에서 대응
	동맹국의 관민과 국제회의
	쿼드와 G7에서 연계
	상무성에 공급망 감시조직을 설치
반도체	국내생산·개발 강화에 500억달러 요청
EV용 전지	170억달러의 신용공여로 국내생산을 지원
중요 광물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의 대외투자 확대
의약품	국산 강화를 위한 관민공동체를 발족

보고서에서는 투자 부족과 정책 착오, 기업의 단기지향 등으로 "미국의 산업 기반이 공동화되었다"고 결론지었음. "미국 단독으로는 취약성에 대처할 수 없다"고도 지적하고, "쿼드나 G7 등 동맹국과의 다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바이든씨 주최로 동맹국의 관민과 공급망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도 개최.

초점인 반도체는 "일본 및 한국과의 최근 성공을 살린다"고 기록했음. 4월의 미일 정상 회담은 반도체 등 공급망의 협력강화에 일치했음. 5월 한미 정상 회담에서는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약1조9천억엔)를 투자해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계획이 발표되었음.

미국 기업은 아시아에 생산을 위탁 해왔음.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2020년 생산 점유율은 12%임. 대만(22%)과 한국(21%), 일본(15%) 보다 낮음. 15%의 중국은 거액의 보조금으로 확대를 꾀하고 있음.

<자동차탑재용 전지의 점유율>

CATL(중)	LG화학(한)	파나소닉(일)	BYD(중)	삼성SDI(한)	기타
25%	21%	19%	9%	6%	20%

자료: 마크라인즈. 2020년 생산용량기준

특히 최첨단 반도체에서 92%를 대만에 의존하는 점을 문제로 삼아, 개발과 생산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법안을 성립시켜 줄 것을 의회에 재차 요구했음. 台灣積體電路製造(TSMC)는 미국에 생산거점을 설립. 바이든 정권은 보조금으로 국내 유치를 노림.

전지에서는 에너지성이 갖고 있는 170억 달러의 신용공여를 사용. 미국 포드모터는 5월 한국의 SK이노베이션과 합작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음. 시장에서는 중국의 寧德時代新能源科技(CATL)이 약 25%로 선두임. 한미가 반격 움직임을 지원함.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증산계획에 대한 대외 투자를 늘림. 호주와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음. 미국 내에서 생산·가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규제완화도 검토. 60%의 생산 점유율을 가진 중국에 대항.

의약품에서는 국내생산의 강화를 위한 민관공동체를 구성. 먼저 50~100종류

의 중요품을 골라, 중국 등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를 검토. 인도는 의약품 등의 중요한 생산지라고 지적하고 있어, 협력을 모색.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부당요금) 등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처하는 팀을 설치. 모터에 사용하는 네오디뮴 자석은 안보보장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적용을 검토.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공급망을 다룸.

공급망을 둘러싸고 당장은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 정부는 위기감이 높아졌음. 보고서는 "전문팀을 출범, 산업계와 수급균형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즉효약은 아님. 단기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장기 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 반도체에 대한 예산은 의회상원에서 심의 중임. 보고서는 충전 거점에 1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등 EV 산업의 예산도 의회에 요구했음. 상무부에 공급망의 감시 조직을 마련하는 법안의 성립도 촉구했음.

바이든 정권은 국산 강화도 포함하여 인프라에 2조 달러 규모를 투입하는 "미국 고용 계획"을 제안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법인 증세에 반대. 보고서는 동 계획의 실현을 재차 호소했음. 여야 협상의 행방은 공급망의 개선도 좌우함.